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2 권 1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6 시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미사성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	--------------	--------------	--------------	--------------

<p>▶제 1 독서 이사 50,4-7</p> <p>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옵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p>	<p>▶제 2 독서 필리 2,6-11</p> <p>복음환호송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p> <p>▶복음 마르코 14,1—15,47 <또는 15,1-39></p> <p>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p>
---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월 1일	이 마틸다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4월 8일	이 클라라	김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4월 15일	이 미틸다	이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4월 22일	이 클라라	김헬레나	성인복사
4월 29일	이 마틸다	이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십자가의 길’ 전례: 사순기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한국어)에, ‘십자가의 길’ 전례가 있습니다. 2월 24일(금)-4월 6일(금).

영어: 저녁 5시. 스페인어: 저녁 6시.

성주간 일정

- 4월 5일(목): 오후 6시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 4월 6일(금): 오후 3시 (주님 수난 성금요일:십자가 경배예식)
- 4월 7일(토): 오후 8시 (부활 성야 미사).
- 4월 8일(주일): 오전 8시 (부활대축일 미사)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교무금	부활꽃
3월 25일	\$ 316.00	\$ 1,570.00	\$ 125.00

*매월 첫째, 셋째 주일 미사에는 2차 봉헌이 있습니다.

공 동 체 소 식

기도회 모임: 4월 4일 (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미사책 4월 8일자 ‘오늘의 묵상’참조)

4월 성체조배: 4월 5일(목) 저녁 6시

‘성목요일’ 저녁 6시 미사 후 4월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 4월 8일(주일)

부활 대축일 미사는 오전 8시, 부활전야 미사는 4월 7일(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임원회의: 4월 10일 (화) 저녁 7시

다음달 한인공동체 임원회의는 4월 10일 저녁 7시, 성당에서 있습니다. 임원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클레멘테 하마미카 축제: 4월 22일 (주일)

사순희생헌금

사순시기 동안, 희생으로 모은 사순희생 헌금 봉투를 부활절에 봉헌해 주십시오.

백합 꽃 후원 (donation): 3월 19일 - 사순시기

부활절 제대 장식을 위한 백합 꽃 (White Easter Lilies) 후원을, 3월 10일 부터 사순시기까지 받습니다. 후원하실 분은 백합 화분 또는 헌금을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하느님과 함께 등산을

한비아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나는 혼자 등산하는 걸 좋아한다. 여럿이도 흥겹지만 홀로 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루종일 하느님과 단독 데이트하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다. 이른 아침,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설 때면 “하느님, 이제 떠나 볼까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산에서는 야생화를 보면 ‘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새를 보면 ‘새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산 정상에 올라 능선을 보면 ‘능선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뿐인가. 산속에서는 감사가, 걱정근심이, 간절한 부탁이 그대로 기도가 된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목청을 돋워가면 조목조목 일러바치기도 한다. 이렇게 종일 옆에 있는 사람처럼 소리내어 하느님에게 마음을 뽕뽕 털어놓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른다.

그래도 야영할 때는 여럿이 간다. 장비도 무겁고 산속에서 혼자자는 게 무서워서다. 지난번 야영산행은 혼자 갔다면 큰일 날 뻔했다. 산을 오르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더 굴러 떨어졌기 때문이다. 데굴데굴 구르면서 첫 바퀴에는 바위에 옆머리를, 두번째 바퀴에선 돌부리에 왼쪽 어깨와 무릎을 세계 찰고는 세 바퀴째에 배낭이 나무가지에 걸리는 덕에 겨우 멈췄다. 하늘이 노래지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같이 걸던 일행 두 분이 순식간에 흙 비탈길을 뛰어 내려와 내 머리와 목이 괜찮은가 살피고는 편편한 곳에 눕게 했다. 나는 놀래서인지 머리를 세계 부딪쳐서인지 골이 아프고 토할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 쓰러져 있는 거, 기념사진 안 찍으세요?”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다시

양쪽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제대로 떼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야영지까지는 1시간 정도 오르막길.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간신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고난의 행진’을 했다. 가파른 길이라 열 발짝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해 쉬었다 가자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생고생을 하는 두 분께 정말로 미안했다. 앞에 가는 분은 아침부터 위통이 나서 남을 돌볼 처지가 아니었고 뒷분도 야영장비가 잔뜩 든 무거운 배낭에 대형 카메라까지 지고 오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시종 웃는 얼굴로 “이게 진짜로 마지막 오르막이에요.”, “내일 아침에 맛있는 커피 만들어 줄 테니 조금만 힘내세요.” 라며 북돋아 주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맙던지.

다음날 부드러운 능선과 기암절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계곡을 내려오면서 어제는 날 그토록 지극히 돌보던 두 분이 과장된 표정과 목소리로 “어머, 한비아님, 어제 산에서 굴렀다면서요?” 라며 하루 종일 날 놀렸다. 나도 질세라 “네, 바위에 머리를 팡 부딪쳤더니 머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산행에서 하느님과 단독 데이트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감사할 거리를 제공해주신 산 친구들 덕분에, 일박 이일 내내 감사기도는 실컷 드렸다. 이래저래 산은 내게 좋은 기도처이다.